

공장들이 다시 돈다

활기 찾은 광주 하남산단 … 근로자들 “공장문 닫는 일 없었으면”

광주 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정상 가동

“20일 만에 공장을 정상 가동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 한 중소업체 근로자 김용환(32)씨는 5일 다시는 공장문을 닫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냉장고·세탁기 부품 제조업체인 김씨의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휴무나 부분 가동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지만, 지난 연말부터 부분가동과 휴무를 반복해 왔다가 이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급

증으로 지난해 말 휴무에 들어갔던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삼성 광주전자 등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하남 산단 중소 제조업체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삼성 광주전자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휴무를 끝내고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800여명이 근무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역시 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 2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금호타이어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5일간 휴무를 끝내고 5일부터 풀 가동에 들

어갔다. 따라서 9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접적단지를 이루고 있는 하남 산단은업체에 따라 지난해 말 25일부터 ‘역지’ 연말휴가를 보낸 후 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금호타이어 생산직 이모(36)씨는 “휴가를 갔다오려고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시간을 가졌다”며 “작업장에 돌아오니 마음이 차라리 편안하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장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등 탄력적 운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장가동은 다시 시작했지만 산업체의 근심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

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끝이 깊어지면서 불안요소가 모두 제거되지 않아 경기상황에 따라 대기업 휴무가 시작되면 추가 감산을 위해 공장 가동을 다시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조규동 하남공단 관리사무소 과장은 “오늘만에 공단이 활기가 끼게 돼 다행이지만 언제 감산으로 가동이 줄어들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당분간은 시장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등 탄력적 운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업 안하면 수당도 없어요’

공고문을 읽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들이 5일 ‘작업이 없을 경우 생산라인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해당 라인의 작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는

기아차 “잘못된 수당지급 없앤다”

작업 없는 라인 퇴근조치 수당 중단키로

기아차가 그동안 회사에 심각한 경영 부담을 주던 불합리한 작업수당 지급 관행을 개선했다.

기아차는 광주, 소하리, 화성공장에 불이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작업이 없을 경우 생산라인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해당 라인의 작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자동차 관계 감소로 인해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일부 조업시간을 줄여왔지만 지금까지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생산라인 직원들에게도 하루 2시간의

작업수당을 지급해왔다.

기아차는 작년 12월 카니발, 쏘렌토, 카렌스, 스포티지 등 4개 생산라인을 작업 없이 운영했으며 이달 들어 프라이드, 포르테, 군수차량을 제외한 13개 라인(엔진라인 포함)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작업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작업을 안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고

용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앞서 지난해말 관리직 임금동결과 훈련생산 등을 통해 자금부담 해소와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 백화점 ‘연말 특수’ 없었다

광주신세계 등 ‘빅3’ 12월 매출 전년대비 ‘マイ너스’

불황 등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의 연말 특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빅 3’의 12월 매출은 전년대비 -1%를 기록했지만 2008년 12월 매출은 1년전에 비해 -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매출은 두자릿수 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아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기위축을 반영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2007년 12월 매출은 전년대비 -1%를 기록했지만 2008년 12월 매출은 1년전에 비해 -11%나 기록해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光銀 8천만달러 외화 조달

지난해 매출을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21%), 명품(17%), 스포츠(10%), 아동(1%) 등은 신장했지만 구두(-39%), 남성복(-21%), 핸드백·골프(-15%), 여성복(-8%)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07년 12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1% 역신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대비 -11%나 기록해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15%나 줄었다. 주방용품(-48%)과 남성복(-28%)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백화점 업계의 매출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에다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유통업체에 백화점과 매출 구조가 겹치는 대형 아울렛의 개점으로 고객들이 분산됐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 내수·수출 누적 판매고

각각 800만대 돌파

기아차 내수와 수출 누적 판매고가 각각 800만대를 넘어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07년까지 내수 771만1천대, 완성차 수출(국내공장 생산분) 743만4천대를 기록한 기아차는 작년에 내수 31만6천대, 수출 108만4천대의 실적을 올려 누적 판매고가 내수 802만7천595대, 수출 817만4천364대를 기록했다.

국내 공장 수출분에 슬로바키아와 중국 등 해외공장 판매분(94만7천 515대)을 합치면 기아차의 누계 해외 판매는 912만대에 달한다.

1962년 3륜 트럭 K-360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원년을 열었던 기아차는 1962년 K-360 판매 이후 지난해 내수 판매 800만대를 넘어서면서 46년만에 판매 누계 800만대를 돌파했다.

수출 800만대 달성을 브리사 광업 10대를 카트리에 수출한 이래 33년만에 달성한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이오니아 1석 2조 페스티벌!

알칼리 이온수기 위장증상 개선효과 허가기념
로봇청소기 증정행사!!



이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로 건강도 쟁기고, 로봇청소기까지 덤으로!

이제 바로 1석 2조! 돈 벌어 주는 이온수기 이오니아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위장장애 4대증상 : 소화불량 / 위산과다 / 만성설사 / 위장내이상발효 ※

이온전문가
IONIA
(주) 이오니아 생활건강

구입상담전화
1544-1219

세계 30여 개국 수출
국내 유명 브랜드 16개 업체
모든 이온수기 필터교환 A/S

※ 행사기간 ※
12/1~12/31
(1개월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명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국민은행 대표전화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대표전화 010-2611-5598 주택/재개발 유관순부장 010-5522-8444

소재지	대지/건물	길거리/층	면적/층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대표전화 010-8811-2017 근린주변 대표전화 010-805-5951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부장은 광주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에 입사해 영동지점장, 홍콩 현지법인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출신인 박 분